

'진심직설' 지눌 저술맞나? 서지·사상 논쟁 뜨겁다

申 금나라
정언선사
저술 가능성

**“수심결” 등
다른 저술과
사상 일치”**

**실재론적 표현
지눌의 사유
설명 어렵다**

**‘점수’ 강조
지눌 사상
그대로 담겨**

최연식 박사 <진심직설>은 18세기 이전의 한국 문헌에서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으며, 이 책이 처음 발견되는 명나라의 대장경에서는 저자를 '고덕선사진심직설(古德禪師真心直說)'로 기록하고 있어 지눌의 저술로 단정할 수 없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새롭게 찾은 중국 개원사 판본(1598년·도서번호 G51798-17)에서는 <진심직설>과 함께 부록으로 <계초심학인문>을 수록하지 않았음을 뿐더러 <수심결> 앞에 <진심직설>을 놓는 등 명나라 대장경과 편찬체계가 다르다. 지금까지 발견된 문헌을 토대로 <진심직설>의 진짜 저자를 추론하면, 북경 근처 담자산 용천사 주지를 지낸 금나라 때의 정언 선사로 볼 수 있다. '진(眞)'과 '직(直)'을 혼용해 사용하고 있는 옛 판본의 특성상 그의 저술목록에 보이는 <진심직설(真心眞說)>이 <진심직설>로 표기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김방룡 교수 <진심직설>을 보조의 저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책은 11개의 판본이 있는데, 명나라 지율이 찬한 <열장지진>에는 조계산 노반 지눌이라 표기됐다. 사상적인 면에 있어서 <진심직설>은 강건기(전북대) 교수가 밝힌 바(보조상연구원 학술발표회, 10월 28일)와 같이 보조의 돈오점수 사상체계를 따르고 있다. 마음이 부처임을 확인한 후 님의 길을 가야한다는 '해오(解悟) 후 점수(漸修)'의 과정이 표현돼 있다. 또한 이타행을 강조하고 있는 면은 지눌의 다른 저서 <수심결>과 <절요>에 나타난 사상과 일치하고 있다. 다음으로 <진심직설>에 수록된 많은 인용 구절들이 보조의 다른 저술과 일치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진심직설>의 서문에 나오는 '道不屬知不屬不知(도는 앎에 속하지 않으며 알지 못함에도 속하지 않음)'는 <수심결>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다.

이덕진 박사 지눌의 마음 이해는 전적으로 반실재론적인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진심직설>에는 진심의 본체는 인과를 초월한다' 등 실재론적인 표현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은 지눌 사유체계 내에서 설명되기 힘들다. 또한 다른 저작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던 승조가 5회나 인용되고 있다. 7천128자 정도의 <진심직설>에 '승조'라는 법명이 5회가 인용되었다는 것은 지눌이 승조를 아주 중요한 인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눌의 다른 저작에서 무엇인가 정도 빈도의 인물로는 규봉종일, 대혜종고, 영명연수 정도이다.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라면 지눌은 승조를 왜 다른 곳에서 인용하지 않았을까?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지눌 사유체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개념들이 <진심직설>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지눌 사유체계는 <직심직설>을 빼버리면 더 명료해진다.

김종명 교수 지눌 사상의 핵심은 돈오점수이며, <진심직설>은 '점수'를 강조하고 있다. 이 책에서 '무심(無心)'을 실천하는 열 가지 방법을 설명하면서 '행(行)'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눌 사상의 정점인 '점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열 가지 방법' 중에는 주관과 객관에 대한 바른 관찰을 통해 존재에 대한 분별심을 없애는 방법과 근기별 수행 방법을 제시하면서 각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택할 것을 강조한 데서는 지눌의 사상적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진심직설>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구절들이 지눌의 다른 저술과 일치하고 있으며, 인용된 구절에 있어서도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진심직설>의 저자를 지눌로 간주하고 있는 김방룡 교수의 주장은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apia.com)

사찰 편액을 찾아서

30 흥경의 선암사·은하사 편액

흥경 장류(弘經 藏六·1899~1971)은 경기도 양주군 출생으로 24세에 건봉사(乾鳳寺)에서 철우 대후(鐵牛大吼)를 은사로 득도하였고, 27세에 동선 정(東宣淨義)를 계사로 규족계를 수지하였다. 이후 그는 건봉사에 머물다가 35세 되던 해에는 예산 정혜사(定慧寺) 만공 월면(滿空 月面)의 문하에서 처음 안거를 시작하여, 각지의 선방을 돌며 선리 참구에 전념하였다. 그는 조계종 경남총무원장과 통도사 주지를 지내기도 하였으며, 노경에 이르러는 김해 청량사에 머물렀다. 흥경은 본시 총명하여 어려서부터 유학에 능통하였다고 하는데, 그가 즐겨 썼던 청(淸) 하소기(何紹基) 풍의 글씨도 서법을 익히던 그 즈음부터 배워 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통도사에 세워진 그의 비갈에도 그의 서예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담백한 생애만큼이나 맑은 기품을 지닌 글씨를 썼던 흥경은 김해 영구암(靈龜庵)에 전하는 해서 금강경판목을 비롯하여 부산 선암사 종무소(선암사), 김해 은하사 선정당(서림사) 편액과 양산 내원사 정려현, 심우당 주련, 산청 대원사 대웅전 주련 등을 남겼다. 부산 선암사 종무소에 걸린 <선암사> 편액은 관지나 도서는 없으나 맥문관주인(麥門館主人) 흥경의 선필(禪筆)이다. 변죽 없는 민



선암사

민판에 글씨만 음양각

서림사

액판 흰색 글씨 검은색

관에 글씨만 음양각한 이 편액은 흥경이 김해 청량사에 머물던 시기쯤, 절을 중수하면서 글씨를 받아 건 것으로 보인다. 편액의 글씨는 운필(運筆)의 절제(節制)와 법도(法度)가 느껴지는 아문(雅潤)한 품격을 지닌 해서이다. 김해 은하사 선정당 한쪽에 걸린 <서림사> 편액은 장식 없는 좋은 번죽이,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액판을 흰색으로, 글씨를 검은색으로 칠한 것이 특이하다. 이 편액은 인도로부터 온 절의 창건주 장유(長遊)와 관련된 것으로 불려진 것에 비로써 된 것이다. 편액의 글씨는 관지와 도서는 없지만 <선암사> 편액과 필체와 서풍이 동일한 흥경의 해서로, 당(唐)의 안진경(顏真卿) 체에서 나온 글씨이다. 안명인(대한불교진흥원)

송광사 '정보보수 교습원' 연다

목조건축재의 보존수리 기술을 가르치는 전문 교육원이 들어선다. 전남 순천 송광사(주지 현봉)는 내년 3월 2일 '불교 정보보수 교습원'을 개원한다. 목조건축재의 경우 국립 해양유물전시관에서 보존 처리를 담당하곤 있지만 보존수리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원이 생기는 국내에서 처음이다. 정보보수 교습원을 통해 불상 등 각종 목조건축재의 보존수리를 담당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되면 훼손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정보보수 재 보존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일동포 고주영 씨
보수기술 고국 회향**

내년 3월 개원

전문화재의 보존수리 기술을 가르치는 전문 교육원이 들어선다. 전남 순천 송광사(주지 현봉)는 내년 3월 2일 '불교 정보보수 교습원'을 개원한다. 목조건축재의 경우 국립 해양유물전시관에서 보존 처리를 담당하곤 있지만 보존수리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원이 생기는 국내에서 처음이다. 정보보수 교습원을 통해 불상 등 각종 목조건축재의 보존수리를 담당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되면 훼손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정보보수 재 보존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광사 경내에 들어서게 될 교습원은 3년 과정으로 보존처리 이론과 함께 철저한 실기 위주의 교육을 하게 된다. 처음 1년 동안 불상 대상을 통해 질감을 배우는 과정을 거쳐 점토로 자기 손으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 골공과 양강을 습득한다. 마지막으로 불상 등을 직접 조각함으로써 문화재 훼손시 보수할 수 있는 기술을 터득하게 한다. 교습원 설립은 국보 42호인 송광사 보조국사 목조삼존불을 보존수리하기 위해 지난 5월과 9, 11월 세 차례 송광사를 찾은 재일동포 문화재 보존수리

전문가 고준영(80) 씨에 의해 이뤄졌다. 고씨는 "일본에서는 100여 년 전부터 미술원을 설치, 중요문화재의 보존수리를 통해 후손들에게 문화유산을 물려주고 있다"면서 "일본에서 갖고 닦은 문화재 보존과학 이론과 실무는 고국의 후학들에게 전해 주고 싶다"고 밝혔다. 교육은 고씨가 직접 맡는다. 고씨는 30년 넘게 동경 국립박물관 미술원 국보수리소에서 국보급 문화재 보존수리를 해 왔으며 일본에서도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손꼽힌다. 주지 현봉 스님은 "조금만 신경쓰면 수리를 통해 보존할 수 있는 정보문화재가 그 동안 무관심으로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흩어져 있는 정보까지 수리할 수 있는 교습원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습원생 모집 접수는 내년 1월 17일부터 2월 7일까지며 불상 대상과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061)755-0107 순천=권원진 기자(jinny@buddhapia.com)

"선어록 연구 현장체험부터 시작"

한국은 중사회과학원 왕즈위엔 교수

"중국의 선학 연구는 화두 연구에 집중되어 있지만, 언어적 해석 차이를 넘어 체험적이고 실증적인 계 특징입니다." 11월 23일 서울 조선회관에서 열린 한·중·일 문화대토론회에 참석한 중국사회과학원 왕즈위엔(시진·王志遠·52) 교수는, 중국 불교학계의 선어록에 대한 연구 경향이 '실증적'임을 강조했다. 왕 교수는 "과거 중국 불교학계는 선어록에 담겨있는 '돈오'에 대한 언어적 해석을 시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결론을 낼 수 없는 '논쟁'만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중국 불교학계의 연구방법론은 기존의 해석학적 연구와 함께 달마, 승찬, 해능, 마조, 대혜 등 중국의 대표적인 선사들이 화두를 깨친 곳을 방문해, 그 곳의 환경을 체험하고 '돈오'의 계기를 찾는 것으로 급진화했다는 것이다. 왕 교수는 "중국 불교학은 역사와 철학 연구에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체험적 연구 풍토에서 비롯됐다"며 "중국불교학은 이끌고 있는 150여 명의 학자들은 이러한 연구방법론에 적응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터 개원하기 시작한 불학원 출신 스님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禪)과 천대(天台)를 연구하면서 <송초천대불학규표>를 비롯해 <불교철학백문>, <선문공안백편>

등 10여 권의 저술과 80여 편의 학술논문은 발표해 온 왕 교수는 중국사회과학원 종교연구소와 중국종교학회에서 중책을 맡을 정도로 중국 불교학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왕 교수는 "중국종교학회에서 11월 초 '한국불교문화센터'와 '선문화예술연구소'를 신설하는 등 한국불교와 선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두 센터를 통해 한·중 불교학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양국의 불교학이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북아시아문화의 지역성과 세계성"을 주제로 11월 23~24일 열린 한·중·일 문화대토론회에는 3개국 30여 명의 학자들이 참석해 '지역문화', '종교문화', '생활문화', '문화산업', '정보문화' 등 5개 소주제별로 토론회를 열고 아시아의 정신문화와 전통적 가치가 21세기 인류와 세계문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오종욱 기자

"불교개혁-대중화 이 시대 화두"

회당학회 학술대회

회당학회가 11월 25일 '21C 한국 불교의 방향'을 주제로 마련한 학술대회는 "불교계가 시급히 풀어야 할 화두는 개혁과 대중화"라는 것을 일깨우는 자리였다.

이날 기초강연에 나선 해정(진각종 종학연구실장) 정사는 "간불 불사와 같이 가시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상황에서는 불교의 미래는 없다"며 "불법으로써 대중을 교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봉춘(동국대) 교수는 "해방 이후 불교계는 개혁과 대중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전통불교의 가

치관과 회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 지금까지 난제로 남겨두고 있다"며 불교계의 현안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원철(서울대) 교수는 "불교의 관용적 태도는 불교가 여러 종교 속에서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고리와 의례 및 제반 활동을 수행하게 하는 힘이 될 것"이라며, 난제를 해결할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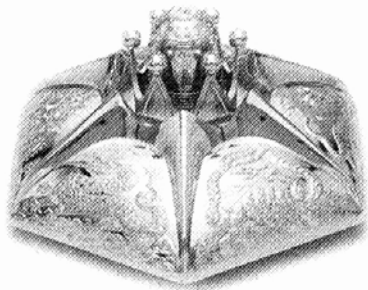
또한 법현(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국장) 스님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통일, 환경, 복지 등에 불교계가 더욱 관심을 가지는 한편 세계 불교단체들과의 활발한 교류 등이 개혁과 대중화를 실현할 지름길"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원 성취 명당 육기(氣) 방



기(氣)란 : 현실이다



명당 육기(氣) 방은 천지(天地)간에 좋은 기(氣)가 모여 혈장(穴場)이 되고 범종은 천지(天地)를 진동하게 울리며 모든 잡신과 잡귀를 내쫓고 범접을 못하게 하며 왕관은 관운과 재운과 명예를 얻고 큰 인물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범종과 왕관을 떠받치는 여섯개의 명산이 감싸고 있고 신의 수호신인 육신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항상 수호해 줌으로 언제 어디서나 어디로 가든 천지간의 좋은 혈장(穴場) 명당 자리라하여 신비의 황금 보물 명당 육기(氣) 방이라 한다. <기(氣)의 중요성>

기(氣)란 현실이다
기(氣)가 약하면 액운이 따르기 마련이고
기(氣)가 강하면 강자가 될 수 있고
기(氣)가 약하면 건강과 명예와 재물을 잃을 것이다.

* 육기방에 효험은 좋다는 분들이 많다.

◆ **사용처** ◆ 가정집, 공부방, 자동차, 공장, 사무실, 가게, 묘지, 사십구제, 천도제, 등 여러곳에 사용함.

◆ **구입처** ◆ 사찰, 암자, 철약관
*수험생을 둔 부모님과 많은 분들께 꼭 권장하고 싶습니다.

(주)명당육기(氣)방: 051)865-9933
공장: 051)864-7878
홈페이지 : www.6kibang.co.kr

옛 부터 금은 보화와 육신(神)을 가정에 두면 액운을 막아준다 하였고 (좌)청룡(靑龍) (우)백호(白虎) (남)주작(朱雀) (북)현무(玄武) 천하(天下)대장 지하(地下) 대장신(神)의 수호신인 육신이 항상 수호해 준다하여 소원성취·안전운행·사업성왕·불화방지·가내화합·시험합격·악귀퇴치·극락왕생·선신수호·삼재예방·관재소멸·운수대통 하게하고 가정을 편안하게 해 주며 천(天) 지(地) 간의 좋은 기(氣)를 받아 나쁜 맥(脈)과 기(氣)를 막아 주고 좋은 혈장(穴場) 명당이 되어 자신대대로 무병장수하고 하는 일마다 잘되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 육기방 수호신장(六氣方 守護神將)◆

좌청룡(靑龍): 천하 4방중에 좌측을 담당하는 신으로써 좌청룡이라 불리워진다. 풍수의 학설에 따르면 정통에서 발생하는 생기(生氣)는 자손 번창의 기운, 권력과 지도자의 기운, 재산의 기운을 대표적으로 갖고 있다.
우백호(白虎): 천하 4방중에 우측을 담당하는 신으로써 우백호라 불리워진다. 우백호의 기세에서는 부자가 나오고 훌륭한 여성이 많이 배출되는데, 딸과 며느리에게 영향을 끼친다. 청룡이 남성이자 백호는 여성이라 말할 수 있다.
남주작(朱雀): 천하 4방중에 남쪽을 담당하는 신으로써 남주작이라고 불리워진다. 주작의 기세에서는 큰 재산을 모으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된다. 주작은 현무와 대칭되는 관계에 있다.

북현무(玄武): 천하 4방중에 북쪽을 담당하는 신으로써 북현무라 불리워진다. 현무는 사신사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현무는 사신사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현무는 한 집안이나 개인에게 특별한 능력을 만들어 주는 생기를 갖고 있어, 현무의 지세가 좋은 지역에서는 능력이 출중한 인물이 배출된다. 현무의 기운은 주작의 기운과 대칭된다.
천하(天下)대장: 천하의 신(神)을 관장하고
지하(地下)대장: 지하의 신(神)을 관장한다.
마을마다 장승이 세워진 뜻은 여기에 있다.
* 주지스님 찬견 후에 제품을 공급 받으십시오.

◆ 생각치도 않은 좋은 신기(新奇)의 기적(奇蹟)들이 많이 일어 난다고 하여 신(神)이나 기적(奇蹟)이나 하는 소리가 많다.◆